

지역 매 아리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첫 발

김제시보건소, 15일까지
시민건강대학 수강생 모집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4일부터 15일까지 2019년도 시민건강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65세 이상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 50명 대상이다. 시민건강대학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450여명의 수요자들을 배출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민건강대학은 건강수치 측정, 국선도 균형체조, 요리교실, 인지미술 프로그램, 심폐소생술, 음악치료, 보드게임, 구강관리, 안전관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김형희 보건소장은 "시민건강대학을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속한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접촉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수강생은 이달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12주간 매주 금요일(9:00~12:00)에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수업을 받게 될 예정이며, 수강생 모집에 대한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063-540-1308)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올해 총 58개
아파트 공동체 선정

완주군이 올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다.

완주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올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된 58개 아파트 공동체 대표와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2019년도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선정 공동체는 총 58개로 활동지원에 53개 공동체, 시설지원에 5개 공동체이다.

공모를 통해 전체 주민화합을 위해 기여하는 모인인 아파트형으로는 15개가 선정됐으며, 아파트, 이웃 마을과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자 하는 모인인 공동체형에는 33개 공동체, 경로당 어르신 프로그램으로 5개 공동체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총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은 1부에서는 2019 아



완주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2019 아파트 공동체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파트 르네상스사업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 아이돌봄사업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2부에서는 아파트를 대표하는 아파트형 대표와 올해 신규 진입한 공동체 총 28개 공동체 대표들의 간단한 공동체 소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올해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5년차로, 점차 주민들

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참여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행복한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져 지역에 선순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나아가길 희망하는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형 공동체를 오는 14일까지 신청·접수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민과 함께하는 신춘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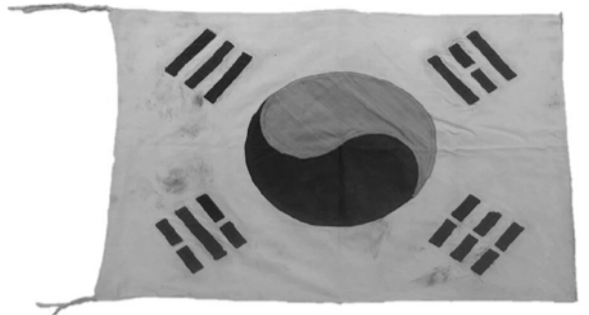
오는 15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서

싱그러움이 가득 찬 새봄맞이 '김제 시민과 함께하는 신춘 콘서트'가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추억의 무대를 선사해 줄 트로트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는 왕성한 활동으로 사랑받고 있는 '안동역에서' '보릿고개'의 진성, '너는내남자' '갈색추억'의 트로트 섹시디바 한혜진, '돌리도' '여거시'의 섹시 아이콘 서지오,

국민가요 '철갑산'으로 심금을 울리는 주병선, '바이바이야' '유쾌상쾌동쾌' 카리스마의 대명사 소명, '당신만이'의 진정이가 출연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행복한 시간을 나눌 전망이다.

신춘 콘서트 예매는 오는 5일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책박물관, '3.1 운동 100년, 태극기 100년' 전시회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완주책박물관(관장 박대현)에서 '3.1운동 100년, 태극기 100년' 전시회를 열었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삼례시장에서 열리는 '완주군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준비된 것.

태극기 전시에는 100여년 전 태극기부터 해방 후 미군정에서 사용한 초대형 태극기, 한국전쟁 중 복직하는 국군을 향해 흔들던 태극기,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이 보관하던 태극기 등 20여점이 전시됐다.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는 500여명의 군민이 삼례책마을까지 약 1.2km를 행진하면서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다.

삼례책마을은 삼례구역사 앞에 위치하여 일제 수탈과 독립항쟁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다.

전영선 문화관광과장은 "이 유물들은 완주책박물관 소장품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3·1만세운동의 정신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마을 건강지킴이 역할 '톡톡'

방문건강관리사업 큰 호응 ... 간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

김제시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으로 질환의심군과 건강행태위험군을 포함하고 있다.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서부터 거동불능·불편자는 물론 재가 암환자에 이르기까지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주민은 15,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동지역에는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치위생사를 포함한 10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읍·면지역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담당 전문가들이 가정이나 경로당을 찾아가는 이 전문 인력들은 주민의 건강문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증상 조절과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키고 건강상태를 유지 및 개선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 마을 건강지킴이로서의



김제시보건소는 가정이나 경로당을 찾아가 주민의 건강문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진은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되면 정기적 방문에 의한 혈압, 혈당검사 등 건강관리는 물론 대상자 별 건강수준에 맞는 기저귀, 영양식품 등 건강용품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필요시에는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대상

자 요구 및 눈높이에 맞는 건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신풍동에 사는 재가 직장암환자 백00씨는 "항암치료중이어서 음식 삼키기가 곤란했는데 뉴케어라는 암환자 전용 식품을 지원 받아 먹으니가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김제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통학택시 운영

완주군이 관내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2019학년도 1학기 통학택시를 운영한다.

완주군은 4일부터 완주군 소재 11개 중·고등학교 학생 약 11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1학기 통학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학택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학생 마을과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정기 운행하는 택시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032명의 학생이 이용했다.

이용대상은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통학거리가 편도 2km이상이고, 노선버스 등 이용이 불편해 도보 또는 사적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학생에 해당한다. 단, 휴일 및 방학기간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운임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고, 이용학생은 각자 이용횟수마다 1000원을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취약계층은 50% 감면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주민복지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혼신

김제시 주민복지과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위기 가구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신청주의로 인한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과 스스로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대상자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주민복지과내 통합조사관(11명)은 신청주의로 인한 저소득 시민의 복지시스템 접근성 저하를 막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상담 조사하는 출장업무의 비율을 종전 업무시간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상담용 전용 차량 구입하여 이용하므로 대상자 발굴에 선제적 안내 제공하는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3월중에는 생활보장심의회를 열어 자녀등과 가족관계단절 등 실제적으로 부양비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심사하여 복지급여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구명석 주민복지과장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주민, 부양관계 단절 가구 및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에 대한 보호대상자 발굴과 위기에 대한 보호대상자 발굴과 위기에 대한 전직원이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읍면동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현장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